

[보도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haza4122@kw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오는 4월 24일(목)과 25일(금) 양일에 걸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 국제 학술심포지엄

- 일시 : 2008. 4. 24(목) 09:30-17:45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관 : 본원 Gender Mainstreaming연구본부
- 주제 :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  
(A New Global Trend on Gender Mainstreaming  
and Its Implications for Women's Policies in Korea)

○ 첫째날(24일)은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A New Global Trend on Gender Mainstreaming and Its Implications for Women's Policies in Korea)’이라는 주제로 Sylvia Walby(Lancaster University, UK), Carolyn Hannan(Division for Advancement of women, UN) 등을 초청해 성 주류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분석하고 한국 여성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1995, 북경)에서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성 주류화를 채택한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반 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화(예: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 성인지예산 등)를 추진해 왔고, 우리나라는 2005년 도입된 성별영향평가가 정착단계에 있으며 성인지 예산은 「국가재정법」을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여성정책과 페미니즘에서의 성 주류화’, ‘글로벌 거버넌스와 성 주류화 전략’,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주제로 발표하고 NGO 관계자, 정부 관계자, 여성정책 전문가, 연구자,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 이처럼 본 심포지엄에서는 여성정책과 페미니즘의 성 주류화 전략에 관한 최신 이론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발전 전략 및 과제를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 □ 국내 학술심포지엄

- 일시 : 2008. 4. 25(금) 09:30-18: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관 : 본원 평등정책연구실, 인적자원연구실, 가족연구실
- 주제 : **선진화 시대를 여는 여성·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

○ 둘째날(25일)은 ‘선진화 시대를 여는 여성·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태현 교수(성신여대)의 기조발제 후, ‘성평등 수준의 선진화’, ‘여성의 일자리와 대표성의 미래’, ‘균형있는 삶을 위한 가족정

책'이라는 세션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여성·가족정책을 살피고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다.

○ '성평등 수준의 선진화' 세션에서는,

- 가시적이고 노골적인 형태의 차별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성평등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차는 크고, 이러한 차별은 간접적이고 은밀한 형태로 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짚고있다. 일상생활에서 성평등의식이 노골적인 수준에서부터 은밀한 수준에서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정의되는 여성상에 대한 시각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따라서 성평등의식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그동안 여성정책이 헌법상의 여성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전개·발전해왔고 1987년 개헌 이후 20여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새로운 여성·가족 정책을 위한 헌법 개정방향을 논의한다.

○ '여성의 일자리와 대표성의 미래' 세션에서는,

-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의 인적자본수준과 생애주기의 요구에 적합한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 여성일자리 창출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 높은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여성정책 지향적 마인드를 가진 여

성공직자 수의 증가와 모든 정책에 성 주류화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 ‘균형있는 삶을 위한 가족정책’ 세션에서는 일·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우리나라의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자녀양육의 부담과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부모휴가정책, 아동양육수당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젠더관점에서 살펴보고,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그 내용 및 쟁점을 논의한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 별첨.

◇ 첫째날(24일; 국제 심포지엄) :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  
(A New Global Trend on Gender Mainstreaming and Its Implications for Women's Policies in Korea)

09:30 - 10:00	등 록		
10:00 - 10:30	개회식 (사회: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개회사: 김 경 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축 사: 이인식 (여성부 차관) Zhe Yang (UNDP 한국대표부 대표)		
10:30 - 12:00	제1세션	여성정책과 페미니즘에서의 성 주류화	
	사회자	김 선 욱(이화여대 교수)	
	주 제		주제발표자
	주제1	한국의 여성정책과 페미니즘에서의 성 주류화 전략	김은실(이화여대 교수)
	주제2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Sylvia Walby (Lancaster University, UK)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5:30	제2세션	글로벌 거버넌스와 성 주류화 전략	
	사회자	정 순 영(숙명여대 교수)	
	주 제		주제발표자
	주제1	유엔 여성발전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 성과와 과제	Carolyn Hannan (Director of Division for Advancement of Women, UN)
	주제2	호주의 AusAID의 경제발전과 성 주류화 전략	이선희 (Director, Gender Thematic Group, AusAID, Australia)
	토론자	신혜수(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15:30 - 15:45	휴식		
15:45 - 17:45	제3세션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	
	사회자	박영란(강남대 교수)	
	주 제		주제발표자
	주제1	베를린과 독일의 성 주류화 제도화 경험	Regina Frey (Head of Genderbuero, Germany)
	주제2	한국의 성 주류화 제도와 과제	김양희(본원 Gender Mainstreaming 연구본부장)
	토론	이비오(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과장)	
		김영옥(본원 성인지예산센터장)	
정봉협(여성부 여성정책국장)			
17:45-18:00	종합토론 및 폐회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 둘째날(25일; 국내 심포지엄) : 선진화 시대를 여는 여성·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

09:30 - 10:00	등 록		
10:00 - 10:20	개회식 (사회: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 개회사 : 김 경 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축 사 : 조한혜정(한국여성학회 회장)		
10:20 - 10:40	기조발제	김태현(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교수)	
10:40 - 12:10	제1세션	성평등 수준의 선진화	
	사회자	이수연(본원 연구위원)	
	주 제		주제발표자
	주제1	새로운 여성 가족 정책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박선영(본원 연구위원)
	주제2	성평등 의식의 현주소	안상수(본원 연구위원) 이수연(본원 연구위원)
	토론	박선이(조선일보 기자)	
		정강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남윤인순(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금미(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책임연구원)	
12:10 - 13:30	점심식사		
13:30 - 15:45	제2세션	여성 일자리와 대표성의 미래	
	사회자	문미경(본원 연구위원)	
	주 제		주제발표자
	주제1	여성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전략	민현주(본원 연구위원) 김종숙(본원 연구위원)
	주제2	실질적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과제	김원홍(본원 연구위원) 문미경(본원 연구위원)
	토론자	조진우(여성부 정책총괄과 과장)	
		엄태석(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권혜자(한국고용정보원 )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45 - 16:00	휴식		
16:00 - 18:00	제3세션	균형있는 삶을 위한 가족정책	
	사회자	변화순 (본원 선임연구위원)	
	주 제		주제발표자
	주제1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가족양립정책과제	장혜경(본원 선임연구위원)
	주제2	젠더관점에서 본 아동양육지원정책	홍승아(본원 연구위원)
	토론	황수경(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홍섭(노동부 여성고용과 서기관)	
		김혜선(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 과장)	
		최은영(충북대 교수)	
18:00-18:30	종합토론 및 폐회		

**별첨.****○ 해외 발제자 소개****가. 실비아 월비 (Sylvia Walby)**

실비아 월비는 여성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의 한명으로 현재 영국 랑카스터 대학(Lancaster University)의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 국제 성평등 연구 네트워크(Gender Equality Research Network International (GENie))를 전두지휘하고 있음.

**나. 캐롤린 하난 (Carolyn Hannan)**

유엔 여성지위향상국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an)의 국장직을 맡고 있는 스웨덴 출신의 캐롤린 하난은 유엔 회원국들의 성평등 증진 노력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총괄하고 있음. 스웨덴 국제 개발 협력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의 성평등 관련 상임 정책자문위원(1992-1998), OECD/DAC의 성평등 추진반(OECD/DAC Working Party on Gender Equality)의 의장직(1995-1997)을 맡은 바 있음.

**다. 레지나 프레이 (Regina Frey)**

현재 독일 성평등국 베를린(Genderburo Berlin)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레지나 프레이 박사는 성 주류화 전략 및 성인지 예산 집행과 관련한 대표적인 전문가임. 독일의 베를린자유대학(Free University Berlin)과 베를린기술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Berlin)에서 성인지 예산, 성평등 이론 등의 강의를 하고 있으며, 국제 성주류화전문가네트워크(Gender Mainstreaming Experts International)과 성인지예산전문가그룹(Bundesinitiative Gender Budgeting)의 위원이기도 함.

**라. Sun-Hee Lee (이선희)**

호주 정부 산하 대외지원단(The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AID)의 젠더분과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희 박

사는 젠더, 보건, 인구 분야와 관련한 전문가임. 세계은행의 보건/인구 프로젝트와 피지 Forum Secretariat의 자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의 연구위원 및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의 관리관으로 활동한 바 있음.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